

# 광주이씨 이당 대감 음택터는 조선시대 8대 명당 중 하나일까 ?

## Is it one of 8<sup>th</sup> Propitious Sites for the Grave of Lee, Dang originated from Gwangju Lee's Family in Chosun Dynasty

김성원\*

###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광주이씨 시조이신 이당 대감 (?-1369) 음택터의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당 대감은 고려말에 국자감 생원시에 합격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으며, 이당 대감 음택터의 경우 조선시대 8대 명당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정승 5명, 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공신 11명을 배출한 명문집안이다. 따라서 이당 대감 음택터의 혈장을 비롯하여 각 사격을 검토하여 광주이씨 문중의 발복을 음택터의 영향으로 평가내릴 수 있는 공학적인 분석의 정성적 및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과연 조선시대 8대 명당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핵심용어 : 광주이씨, 이당대감, 풍수지리, 8대 명당

#### 1. 서론

풍수(Feng Shui)는 고대 중국의 사상으로 도시, 주거지, 건물 및 음택터 등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해 왔다. 기의 흐름을 사물의 위치에서 제어하는 사상이라 하여 감여(堪輿)라고도 한다. 풍수에서는 도시나 주거지 즉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공간을 양택(陽宅)이라 하고, 무덤 즉 죽은 사람의 주거공간을 음택(陰宅)이라 구별한다. 이처럼 풍수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가상의 길흉과 음양오행의 기운이 현재 살고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에는 음택풍수보다 양택풍수를 더 중요시한다(곽정진, 2007; 김두규, 2004; 무라야마 지준/최길성, 1990; 유철준, 2010; 장용득, 1976; 지중학, 2010; 지창룡, 2005; 최창조, 1992, 1996).

#### 2. 이당 대감 음택터의 정성적인 분석

경상북도 영천시 북악면 도유리에 이당 대감 음택터가 있다. 이당 대감은 고려말에 국자감 생원시에 합격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이당 대감은 고려 말의 사람으로 인화이씨와 5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인령, 원령(집), 희령, 자령 및 천령의 5형제는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중 둘째 아들 둔촌(遁村) 이집(1314-1387)은 공민왕 17년(1368년) 권문세족들에 대한 정치개혁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돈의 개혁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부친 이당 대감과 함께 영천에 있는 사간원 영천최씨 최원도의 집에서 몇 년간 힘든 은신생활을 하게 된다. 영천으로 피난 온 다음 해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당 대감이 돌아가신다. 피신하는 신세이므로 장사도 은밀히 치러야 했다. 하지만 최원도는 자신의 수의 및 신후지를 내어주며 이당 대감의 장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최원도의 모친 영천이씨 아래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그 후 신돈이 살해된 이후에 이집은 개성으로 돌아왔다(광주이씨 대종회).

조선시대에 광주이씨는 문과 191명, 무과 124명을 포함하여 총 713명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정승 5명, 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및 공신 11명을 배출하였다.

#### 2.1 사신사의 검토

사신사는 혈의 사방을 둘러싼 것이다. 혈의 후방에 있는 것을 현무(玄武), 전방에 있는 것을朱雀(朱雀), 좌측에 있는 것을 청룡(靑龍), 우측에 있는 것을 백호(白虎)라고 한다. 『금낭경(錦囊經)』에 의하면 현무는 정지하는 것이 좋고,朱雀는 다가와서 상무(翔舞)하는 것이 좋고, 청룡은 지렁이처럼 길게 꿈틀거리고 뺨아서 둘러싸이고, 백호는 호랑이가 쭈

※ 정희원, 공학박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동양대학교 철도토목학과 부교수 ; E-mail : [swkim1968@dyu.ac.kr](mailto:swkim1968@dyu.ac.kr)

그리고 앉아서 서로 맞는 듯한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1.1 청룡의 평가

이당 대감 음택터의 청룡에 대한 평가는 본인의 관점에 의하면 『금낭경(錦囊經)』에 나오는 내용처럼 지렁이처럼 길게 꿈틀거리고 뻗어서 둘러싸이는 형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청룡은 주산인 현무봉 으로부터 와서 짧고 낮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당 대감 음택터의 청룡은 백호에 비하여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룡 끝자락에 위치한 영천최씨 문중의 하녀인 “연아”의 무덤인 “연아총”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 2.1.2 백호의 평가

이당 대감 음택터의 백호에 대한 평가는 본인의 관점에 의하면 백호의 발달이 뛰어나서 안산까지 휘감아 청룡의 끝 부분까지 형성하고 있어서 야자(也字)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박인태 (2008)에 의하면 야자형은 한문으로 也 자모양으로 된 형국을 말하는데, 청룡이 짧고 백호는 길어 안산을 이루고 혈은 그 중앙에 있다. 也 자는 문장을 끝내는 마지막 글자이므로 대문장가를 배출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 광주이씨 후손 중에 “오성 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 대감은 32세의 젊은 나이에 대제학이 되고 38세에 우의정, 42세에 영의정에 오르며, 임진왜란이 터지자 명나라에 가서 탁월한 외교수완으로 5만명의 명나라 군인을 끌어 들여서 서울수복에 큰 수훈을 세웠다. 게다가 백호쪽의 간(艮), 병(丙), 손(巽), 신(辛), 태(兌) 및 정(丁) 향에는 귀봉 및 부봉이 즐비하다.

### 2.1.3 현무의 평가

이당 대감 음택터의 현무에 대한 평가는 낮은 야산의 금성체(金星體)의 형태를 하고 있다. 금성체는 산 정상에 마치 종이나 가마솥을 엮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구성으로는 무곡성(武曲星)이며 복덕을 가져다 주는 기운이 가득하다. 산이 낮고 작으면 태음금성(太陰金星)이라 하며, 주로 부를 관장한다.

### 2.1.4 주직의 평가

이당 대감 음택터의 주직에 대한 평가는 『금낭경(錦囊經)』에 나오는 내용처럼 주직이 상무(翔舞)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안산 및 조산이 이당 대감 음택터를 향하여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형국이 조선시대 8대 명당에 해당되는 대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 2.2 현의 검토

음택풍수의 핵심은 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사신사의 형국이 최상이라도 혈이 진혈이 아닌 경우에는 허화(虛華)에 해당된다. 이당 대감 음택터의 경우 사신사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의 관점에 의하면 이당 대감 음택터의 경우 혈장이 가로방향(좌향방향) 10.6m, 세로방향 10.2m에 해당되며 형국은 야자형(也字形)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당 대감 음택터는 조성된지 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엄청난 생기(生氣)가 음택터에서 발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 또한 이 음택터가 명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정성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김성원, 2011). 다음 Photo 1(a)-(d)는 이당 대감 음택터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 3. 이당 대감 음택터의 정량적인 분석

본인이 개발한 “음택터의 정량적인 평가기준 (Ver. 1.5, 2009/06)” Sheet을 이용하여 이당 대감 음택터의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인이 설정한 기준은 총 2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청룡, 백호, 조산, 안산, 현무, 혈장, 수구 및 귀사격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본인의 경우 혈장이 90점의 배점으로 전체 점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택터의 등급에 따른 정량적인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광주이씨 이당 대감 음택터의 경우 200점 만점에 90.2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반급 명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반급 명당의 발복으로 조선시대 문과 191명, 무과 124명을 포함하여 총 713명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정승 5명, 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및 공신 11명을 배출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광주이씨 후손들에 대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면 명당의 발복론을 허구의 내용으로 치부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명당의 발복론을 공학적인 혹은 수학적 기준에서 설명을 위해서는 명당해석의 여

러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의 기준으로 추론가능한 것은 광주이씨 경우 시조이신 이당 대감 음택터의 영향으로 많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으며, 그 후손들이 광주이씨 시조이신 이당 대감의 명당보다 더 뛰어난 명당에 들어가서 중시조의 역할을 수행하심으로써 광주이씨 문중의 발복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당 대감 음택터의 좌향은 본인의 기준으로는 “입좌병향 (壬坐丙向)” 을 나타내고 있으나 광주이씨 문중의 기록으로는 “자좌오향 (子坐午向)” 을 나타내고 있다. 오행으로 판단하면 수국 (水局)이다. 일반적으로 자좌의 경우 정남향으로서 제왕방을 나타내고 있다.



Photo 1(a) 이당 대감 음택터 : 봉분



Photo 1(b) 이당 대감 음택터 : 봉분 및 백호



Photo 1(c) 이당 대감 음택터 : 봉분 및 연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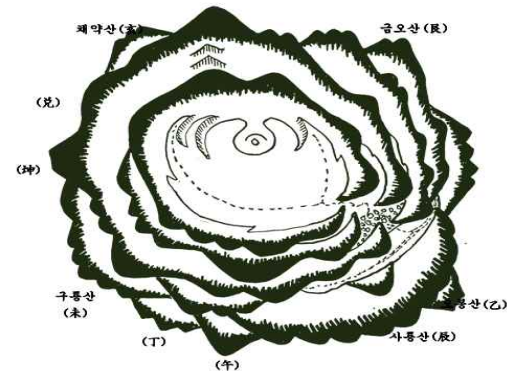


Photo 1(d) 이당 대감 음택터 : 조선시대 명당도

Table 1. 음택터의 등급에 따른 정량적인 기준

분류	기준	비고
> 150	특반급 명당	시조급
120 - 150	국반급 명당	시조급
90 - 120	도반급 명당	중시조급
70 - 90	향반급 명당	중시조급
< 70	양호한 터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주이씨 이당 대감 음택터의 정성적 및 정량적인 환경풍수학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성적인 평가는 본인의 평가를 박인태 (2008)의 내용과 비교하였고, 또한 정량적인 평가는 본인이 작성한 “음택터의 정량적인 평가기준 (Ver. 1.5, 2009/06)” 를 이용하여 판단하면 200만점에 90.2점을 취득하여 “도반급 명당” 에 해당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8대 명당 중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광주이씨 이당 대감 후손들의 발복

을 판단하면 명당의 발복론을 공학적인 혹은 수학적 기준에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명당해석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의 기준으로 추론가능한 것은 광주이씨의 경우 시조이신 이당 대감 음택터의 영향으로 많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으며, 그 후손들이 광주이씨 시조이신 이당 대감의 명당보다 더 뛰어난 명당에 들어가서 중시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광주이씨 문중의 발복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기준은 개인적인 평가기준에 해당되어 아직까지 보편적인 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한 음택터의 환경풍수학적 기준 또한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과 더불어 제도권내 학문으로 유입되지 얼마되지 않은 풍수학의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1.곽정진 (2007), 풍수지리 기초이론, 한국명당보존연구회 강좌노트.
- 2.광주이씨 대종회 홈페이지 [www.gwanglee.or.kr](http://www.gwanglee.or.kr).
- 3.김두규 (2004), 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 4.김성원 (2011), 동래정씨 정사대감 음택터의 환경풍수학적 검토, **2011년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습지학회, pp. 133-136.
- 5.무라야마 지준 지음/ 최길성 옮김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
- 6.박인태 (2008), 풍수사전, 형설출판사.
- 7.유철준 (2010), 실전풍수이론, 명문풍수지리연구원 강좌노트.
- 8.장용득 (1976), 명당론전집 -하남의 비결-, 에밀레미술관.
- 9.지종학 (2010), 풍수지리 형세론, 다사랑.
- 10.지창룡 (2005), 한국지리총람: 명당찾아 삼천리, 명문당.
- 11.최창조 (1992), “풍수사상에서의 물” 대한건축학회지, 제 36권, 제 2호, pp. 27-31.
- 12.최창조 (1996),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